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최근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

# 목 차

## ■ 최근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

Executive Summary .....	i
1. 미약하나마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	1
2.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 .....	2
3. 시사점 .....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미약하나마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최근 일본경제는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016년 일본경제는 계절조정 전기비연율 기준 1/4분기 2.0%, 2/4분기 0.2%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했으나, 경기 진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추세적인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다. 다만,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기준 100을 상회하고, 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가 2016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향후 일본경제는 엔화 향방, 고용과 가계소득, 2016년 8월 발표된 경제대책의 효과 정도에 따라 회복세가 결정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경제의 전망과 국내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

① **엔화 강세 지속 우려 상존** : 일본은행은 2016년 들어 1월 29일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데 이어 7월 29일에도 추가 금융·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엔저 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하지만, 2015년 6월 평균 123.7엔/달러를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엔/달러 환율은 2016년 8월 101.3엔/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엔화의 실질실효환율도 2015년 6월 67.8에서 2016년 7월 82.5까지 상승함으로써 아베노믹스 성공의 초석인 엔저 유도에 실패하였다. 2017년에도 일본의 실물경기 회복세 지속,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현상 지속 등으로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② **고용 환경 개선세 지속** : 2016년 들어 엔고 등으로 일본 기업들의 수익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시장도 양적·질적 개선세가 이어졌다. 일본의 전산업 경상이익 규모는 2016년 상반기 39.7조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축소되었으나, 설비투자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실업률은 2016년 7월 3.0%까지 하락했고, 유효구인배율도 1.37배까지 상승하는 등 양적 개선과 함께, 정규직 고용 규모가 비정규직에 비해 13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 개선도 가속화되었다. 더욱이,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판단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업황지수)는 여전히 설비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업원수판단 BSI에서도 종업원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17년에도 고용 환경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③ **완만하나마 가계 소득과 소비 회복세 지속** : 2016년 들어 미약하나마 고용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가계 소득과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현금급여총액지수와 정규급여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2016년 들어 2분기 연속 증가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도 201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한편, 개인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가 2016년 초부터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종합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

가도 2016년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2017년에도 소폭이나마 가계 소득과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르는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④ **기대에는 못 미치나 경기 회복 마중물이 될 경제 대책** : 지난 2016년 8월 2일 일본정부는 총규모 28.1조 엔의 경제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일본 정부 기대치(실질 GDP 1.3% 상승)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이는 경제 대책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명확한 순수 재정 투입 규모는 6.2조 엔으로 그나마 2016년도와 2017년도로 나누어 집행되고, 재정투융자 규모가 6조 엔으로 국비 투입 규모와 유사하지만 GDP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일본의 주요 민간 전망기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GDP 0.2~0.4%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⑤ **2017년 경제 성장률은 1% 내외의 미약한 회복세 지속** : 2016년 일본경제는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지난 2016년 8월 2일 발표된 경제 대책 효과가 가시화됨과 동시에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0% 내외 수준의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사점

우선, 향후 일본경제는 엔고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엔저 등으로 감소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 가계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안심·안전 먹거리의 對日 수출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등 한류 기반 소비재의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일본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되면서 경쟁력을 되찾아 가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전략이 추동력을 얻게 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첫째, 일본의 성장전략 및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27일 신산업구조비전을 발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 및 고용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 엔진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 차원의 전략과 세부 내용들이 국내 정책들과 매우 유사하며, 산업 부문별로는 중복되어 상호 경합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쟁력에서 일본에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정책 차별성은 물론 동일한 산업 부문에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주행, 분산형 에너지, 첨단로봇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 개선, 브랜드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 경제·산업의 중심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되었다고는 하지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나 산업구조 재편 및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등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 1. 미약하나마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 최근 일본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는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미약하나마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일본경제

- 2016년 들어 일본경제는 계절조정 전기비연율 기준 1/4분기 2.0%(계절조정 전기비, 0.5%), 2/4분기 0.2%(동 0.0%)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단, 경기 진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추세적인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음

-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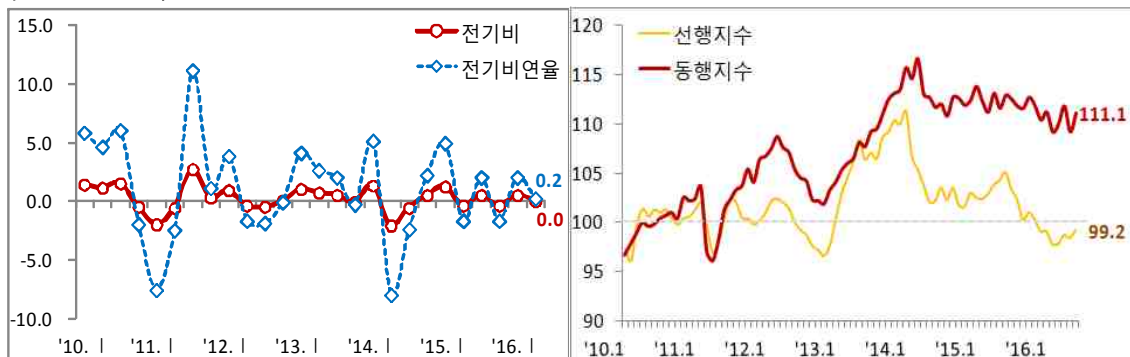
-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는 2016년 6월 111.1로 기준 100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지난 2015년 중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경기선행지수(향후 경기 향방을 나타냄)는 2016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 동년 6월 99.2까지 상승

○ 이하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경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일본경제의 향방에 대해 알아본 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향후 일본경제는 엔화 향방, 고용과 가계소득, 2016년 8월 발표된 경제 대책의 효과 정도에 따라 회복세가 결정될 전망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아베노믹스는 간단히 말하자면 엔화 약세 유도, 기업 수익 증대, 고용과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투자 증대의 선순환 고리 형성이 핵심임

< 일본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 일본의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 추이 >  
(계절조정, %) (2010년=100)



자료 : 日本 内閣府.

자료 : 日本 内閣府.

주 : 동행지수는 일치(一致)지수를 말함.

## 2.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

### ① 엔화 향방

-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금융통화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외 여건 악화로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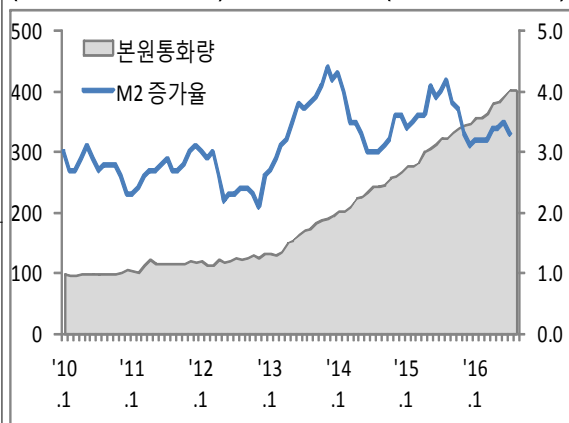
#### -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금융·통화완화책으로 통화량은 지속 증가

-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29일 마이너스금리를 포함한 질적·양적금융완화책을 발표함으로써 일본은행 당좌예금을 대상으로 -0.1%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 양·질·금리의 3차원 완화책을 성립시킴
- 이후, 동년 7월 29일에는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투자신탁) 매입 규모 확대 및 기타 금융·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할 방침임을 발표함으로써 엔저를 유도
-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년 1월 약 355.1조 엔이었던 본원통화량은 동년 8월 401.0조 엔으로 약 46조 엔 증가하였으며, M2 증가율도 2016년 평균 3% 이상 수준을 유지

< 2016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책 >

1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너스 금리 도입(일본은행 당좌예금 -0.1%)</li> <li>- 본원통화량 연간 80조엔 증가</li> <li>- 국채 등 자산매입 규모 확대 ⇒ 양, 질, 금리의 3차원 완화</li> </ul>
7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투자신탁) 매입규모 확대</li> <li>- 기타 자산매입 방침, 정책 금리는 기존 방침 유지</li> </ul>

< 일본의 본원통화량 및 M2 증가율 추이 >  
(본원통화량, 조엔) (M2 증가율, %)



자료 : 日本銀行, マイナス金利付き量的・質的金 자료 : 日本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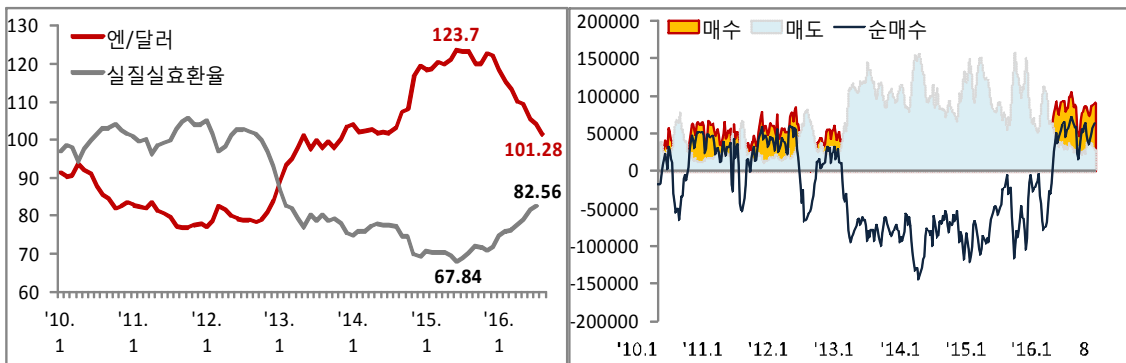
融緩和, 2016年 1月 29日; 金融緩和の 주 1) 본원통화량은 평잔 기준임.

強化について, 2016年 7月 29日.

2) M2=현금+예금+준통화+양도성예금.

- 하지만, 2016년 들어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아베노믹스 성공의 초석인 엔저 유도에는 실패
  - 엔/달러 환율은 2015년 6월 월평균 123.7엔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 2016년 8월에는 월평균 101.28엔까지 하락
  - 엔화의 실질실효환율도 2015년 6월 67.84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후 2016년 7월 82.56까지 상승
- 향후에도 엔화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미약하나마 경기 전반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금융 측면에서는 2016년 들어 엔화 선물 순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한편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르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어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2016년 4/4분기 104엔/달러, 2017년에는 108엔/달러로 전망하는 등 소폭의 엔화 약세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의 주요 민간연구소들은 향후 엔화 강세가 일본의 실질 GDP를 낮출 것으로 우려<sup>1)</sup>

< 일본의 명목 및 실질실효환율 추이 > (엔/달러, 2010년=100)      < 엔화 선물 순매수 포지션 추이 > (2010년=100)



자료 : 日本 内閣府.

자료 : Bloomberg.

주 : 엔/달러 환율은 도쿄시장 엔 스팟 17시 시점 월중 평균값.

1) 오는 9월 20일에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종합평가가 발표될 예정으로 이 때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엔/달러 환율 상승 기대는 곤란. 한편, 일본의 민간전망기관들은 2016년 엔/달러 10% 절상은 일본의 실질 GDP를 0.2%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려. 이상 투자은행 전망치는 평균값으로 Bloomberg, 엔화 환율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大和総研, 第190回 日本經濟予測, 2016年 8月 9日; 三菱総合研究所, 2016-2017年度の内外景気見通し2016年 8月 16日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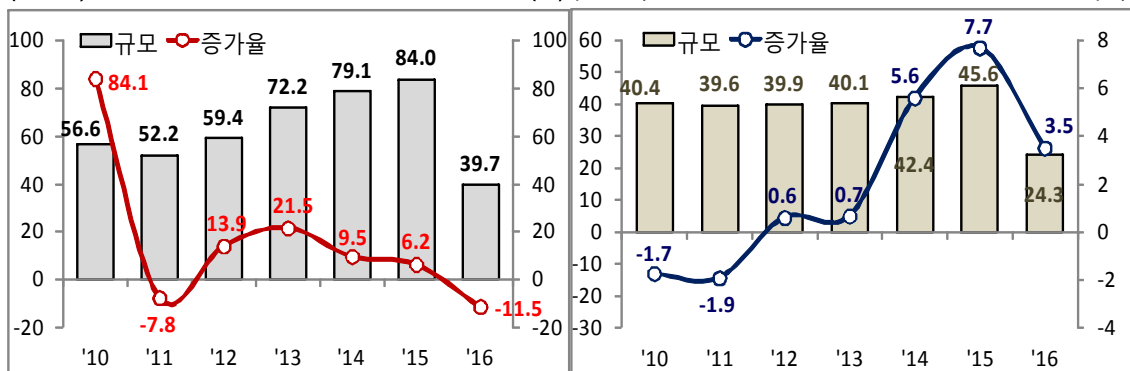
② 고용

○ 엔고 등으로 기업 수익력이 약화되면서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고용 시장이 급랭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2016년 들어 엔고 등으로 기업 수익력이 크게 약화된 반면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일본 전산업 경상이익 규모는 2016년 상반기 39.7조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축소되었으나, 2013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
- 한편, 2016년 들어 수익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데 반해 동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설비투자는 3.5% 증가

< 일본 전산업 경상이익 규모 추이 > (조 엔)      < 일본 전산업 설비투자 규모 추이 > (%) (조 엔)



자료 : 日本 財務省.

자료 : 日本 總務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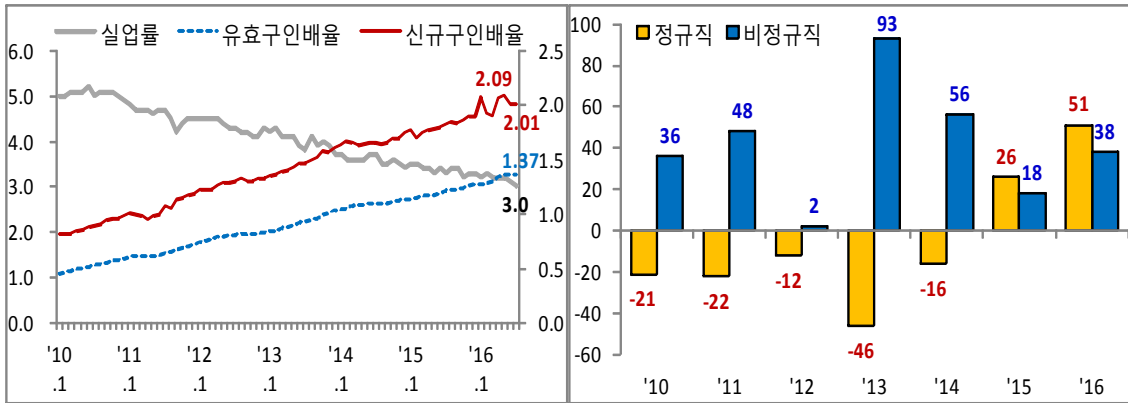
주 : 2016년은 1/4~2/4분기 경상이익 총계,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임.      주 : 2016년은 1/4~2/4분기 설비투자 총계,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임.

- 최근 일본의 고용 시장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

- 일본의 실업률은 2016년 7월 3.0%까지 하락, 유효구인배율은 1.37까지 상승하는 등 양적 개선이 지속
- 또, 2015년에 이어 2016년 7월까지 누적 정규직은 51만 명, 비정규직은 3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고용 시장 개선이 지속
- 한편, 당월 신규구직자 대비 신규구인자수 비중을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율도 여전히 2 이상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고용시장 개선 기대감이 지속



< 일본의 실업률 및 구인배율 추이 > < 일본의 정규직 비정규직 증감 추이 >  
(실업률, %) (구인배율, 배) (만명)



자료 : 日本 總務省, 厚生労働省.

자료 : 日本 總務省.

주 1) 각 값은 계절조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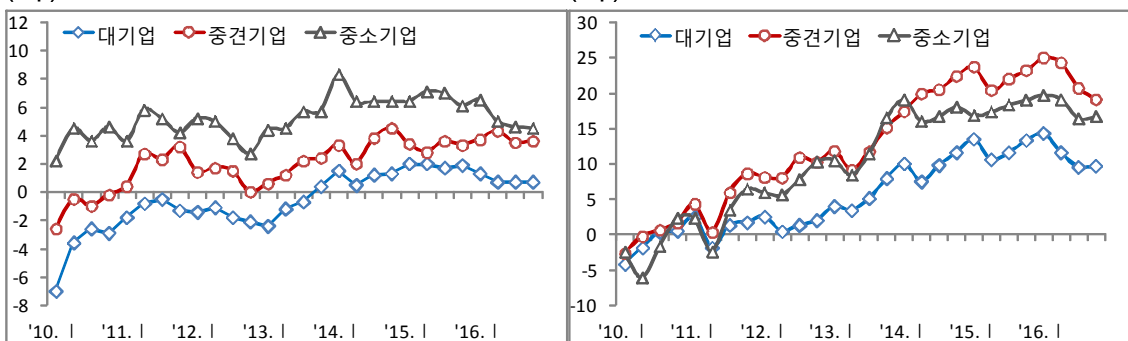
주 : 2016년은 1~7월 평균과 2015년 1~7월 평균과의 차이임.

2) 유효구인배율은 총 구직자 수 대비 총 구인자 수로 고용시장 현황을, 신규구인배율은 당월 기준으로 고용시장 전망을 나타냄.

- 향후에도 일본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

-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판단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업황지수)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설비투자가 부족하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미약하나마 기업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임
- 한편, 종업원수판단 BSI는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말까지도 종업원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일본 기업업황지수(BSI) - 설비투자판단 > < 일본 기업업황지수(BSI) - 종업원수판단 >  
(%p) (%p)



자료 : 日本 財務省, 厚生労働省.

자료 : 日本 財務省.

주 1) 설비투자판단지수는 부족 응답 비중-과잉 응답 비중임.

주 1) 종업원수판단지수는 부족 응답 비중-과잉 응답 비중임.

2) 2016년 3/4~4/4분기는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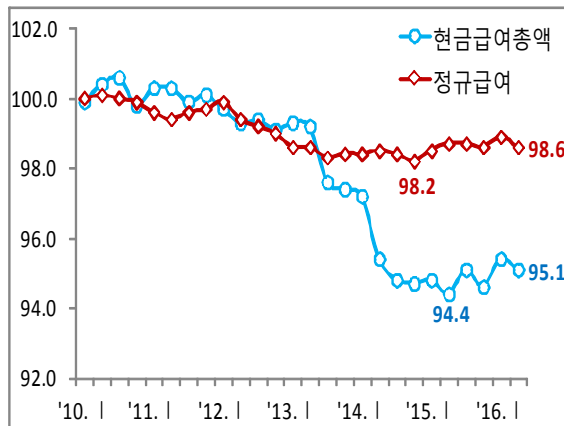
2) 2016년 3/4~4/4분기는 전망치임.

### ③ 가계 소득과 소비

○ 2016년 들어 미약하나마 가계 소득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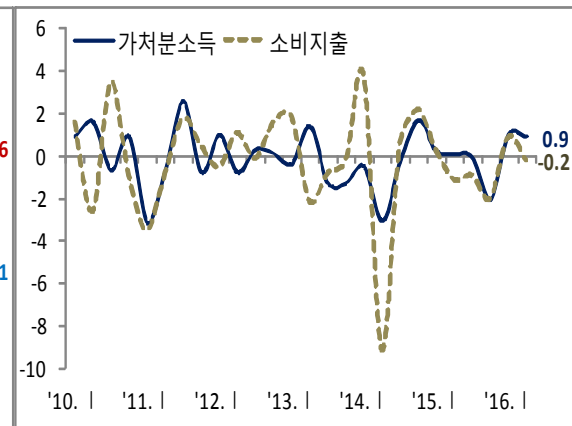
- 미약하나마 고용자 임금 상승으로 가계 소득과 소비 회복세가 지속
  - 현금급여총액지수는 2015년 2/4분기 94.4까지 하락한 후 2016년 2/4분기에 95.1까지 회복, 정규급여지수는 2014년 말 98.2에서 2016년 2/4분기 98.6으로 소폭 상승
  -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016년 들어 2/4분기까지 2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며, 가계 소비지출도 201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일본 고용자 임금 추이 >  
(실질계절조정 2010년=100, p)



자료 : 日本 厚生労働省.  
주 : 전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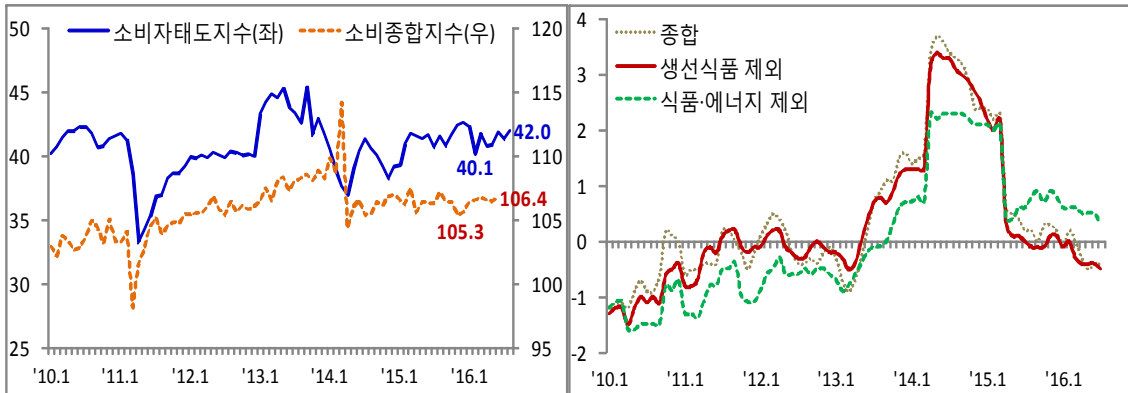
< 일본 가계 가처분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 >  
(실질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



자료 : 日本 總務省.  
주 : 근로자세대 기준.

- 개인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도 낮아 향후에도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개인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가 2016년 초부터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소비종합지수의 상승세가 지속
  - 소비자물가는 2016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 2017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상존

< 일본 소비자태도 및 소비종합 지수 추이 >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  
 (계절조정, p) (계절조정, 2005년=100, p)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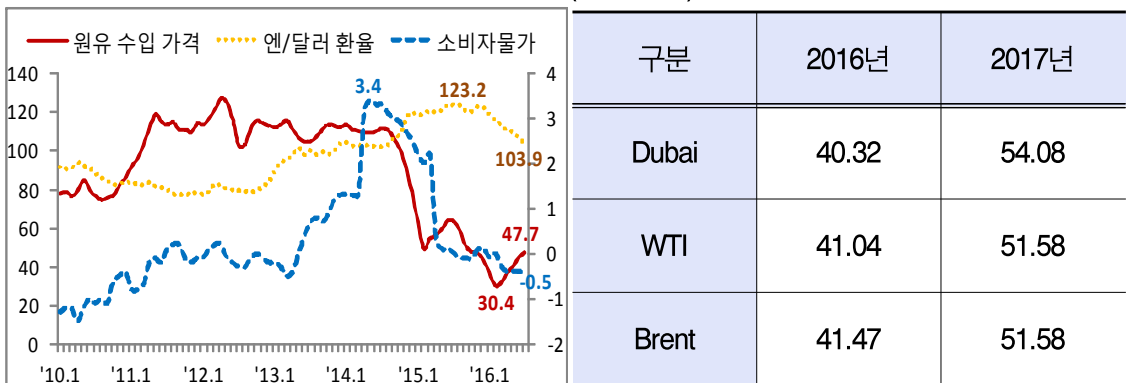
자료 : 日本 内閣府.

자료 : 日本 總務省.

주 : 소비자태도지수는 2인 이상 세대 기준.

- 단, 최근 유가 상승에도 엔고 등으로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유가 상승에 따르는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 원유수입가격은 2016년 2월 배럴당 30.4달러에서 7월 47.7달러로 47.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물가는 지속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
- 동기간 엔/달러 환율은 115.0엔/달러에서 103.9엔/달러로 9.7% 하락
- 한편, 2017년 국제유가는 Dubai 기준 약 34%, WTI 기준 약 26%, Brent 기준 약 24% 정도 상승할 전망이나, 엔화 향방과 경제 전반의 수요 압력을 고려하면 국제유가 상승이 본격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시기는 2017년 후반 이후로 예상

< 일본 원유수입가격, 환율, 물가 추이 > < 국제유가 전망 >  
 (달러/배럴, 엔/달러) (전년동기대비, %) (달러/배럴)



자료 : 日本 内閣府.

자료 : Bloomberg.

주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생선식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임.

주 : Dubai는 CERA, WTI와 Brent는 EIA 전망치임.

④ 경제 대책의 효과

○ 2016년 8월 2일 일본정부는 총규모 28.1조 엔의 경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일본정부 기대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 2016년 8월 2일 일본정부는 '미래의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 대책'을 발표
  - 본 경제 대책의 총사업비 규모는 28.1조 엔으로 이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는 총 13.5조 엔이며, 나머지 14.6조 엔은 정부계 금융기관의 용자나 민간 부담으로 구성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본 경제 대책이 실질 GDP를 1.3%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하지만, 이번 경제 대책의 효과는 일본정부 기대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 순수 재정 투입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명확한 국비는 6.2조 엔인데 이 중 4.5조 엔은 2016년도 예산으로 나머지 1.7조엔 정도는 2017년도 예산
  - 한편, 재정투융자 규모가 6조 엔으로 국비 투입 규모와 유사한데, 재정투융자가 GDP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또, 정부계 금융기관의 용자나 민간 부담에 의해 충당되는 나머지 사업비의 실현에도 불확실성이 상존
  - 일본의 주요 민간 전망기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실질 GDP 0.2~0.4%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sup>2)</sup>

< 2016~2017년 일본의 경제 대책(2016년 8월 2일 기준) >

경기 대책	사업비 내역(조 엔)		
	총사업비	재정 투입 규모	
		국비·지방비	재정투융자
1. 1억총활약사회 실현 가속	3.5	2.5	0.9
2. 21세기형 인프라정비	10.7	1.7	4.4
3. 영국의 EU 탈퇴에 따르는 불안정성 등 리스크 대응 및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및 지방 지원	10.9	0.6	0.7
4. 쿠마모토지진과 동일본대지진 복구 및 방재 대응 강화	3.0	2.7	0.0
계	28.1	7.5	6.0

자료 : 日本 内閣府, 未來への投資を實現する經濟對策, 2016年 8月 2日.

2) <http://www.sankeibiz.jp/macro/news/160803/mca1608030500015-n1.htm>.

⑤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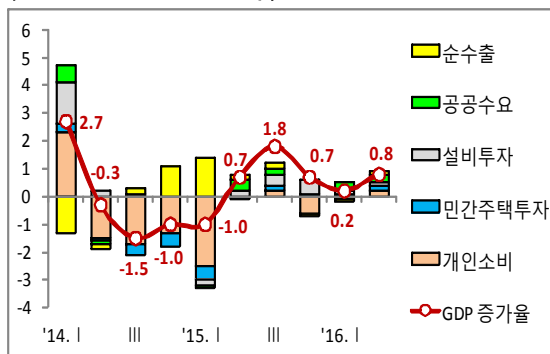
○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일본경제는 낮은 수준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일본경제는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개인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2016년 1/4분기까지 마이너스 수준이었으나, 2/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 향후에도 고용 환경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가계 소득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민간투자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2016년 하반기에도 민간주택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수준을 보이고, 설비투자도 플러스 성장 기여도 지속 예상<sup>3)</sup>
- 외수 부문도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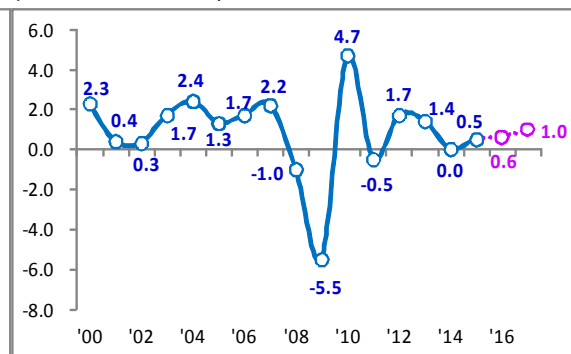
- 2017년에는 지난 2016년 8월 2일 발표된 경제 대책 효과가 가시화됨과 동시에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일본의 부문별 성장 기여도 추이 >  
(전년동기대비, %, %p)



자료 : 日本 内閣府.

<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6~2017년 전망치는 세계 주요 투자은행 및 일본 주요 전망기관 전망치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3) 2016년 8월 현재 일본의 기준대출금리는 0.3%, 무담보콜금리는 월평균 -0.043, 대출약정금리는 2016년 7월 기준 0.736% 수준에 불과함. 이상 日本銀行.

4) 2016년 7월 누적 기준 일본의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달러화 기준 219억 달러 흑자, 엔화 기준 2.3조 엔 흑자를 기록. 이상 JETRO.

### 3. 시사점

- 향후 일본경제는 엔고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첫째, 엔저 기조가 약화됨에 따라 엔저 등으로 감소한 일본인 관광객 유치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일본인 관광객들의 경우, 개인 취향에 따라 쇼핑, 지역 관광 명소 및 먹거리 탐방, 미용, 의료 등 방한 목적과 방문지가 매우 다양함
  - 특히, 일본인들의 경우 단체 관광보다는 개인,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중심으로 자유여행객들이 주를 이룸
  - 이러한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의 제작·마케팅이 필요하며,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SNS와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은 물론 관광 명소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같은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둘째, 경기 회복에 따르는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안심·안전 먹거리의 對日 수출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등 한류 기반 소비재의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함
  -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심·안전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계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일본은 국내산 먹거리의 주요 소비 시장이 될 수 있음
  - 한편, 최근 일본 내 험한 분위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반면 일본인들의 한류에 대한 관심도 재고조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화장품이나 패션 등 한류 기반 소비재의 수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큼
- 한편, 일본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되면서 경쟁력을 되찾아 가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전략이 추동력을 얻게 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sup>5)</sup>

5) 이하 일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1, 2 참조.

- 첫째, 일본의 성장전략 및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27일 신산업구조비전을 발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자국 산업 및 고용 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 엔진을 강화하고자 함
  - 이러한 일본 정부 차원의 전략과 세부 내용들이 국내 정책들과 매우 유사하며, 산업 부문별로는 중복되어 상호 경합하는 형국임
  - 전반적인 경쟁력에서 일본에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정책 차별성은 물론 동일한 산업 부문에서 어떻게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
  
- 둘째,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 개선, 브랜드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자율주행, 분산형 에너지, 첨단로봇 등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쿄올림픽을 쇼케이스로 활용함으로써 브랜드화하려는 ‘개혁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이들 산업 부문도 국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육성을 꾀하고 있는 분야로 일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음
  
- 셋째, 국내 경제·산업의 중심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되었다고는 하지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나 산업구조 재편 및 이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등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됨
  -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제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회의 산하에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추진회의(가칭)’, ‘로봇혁명실현회의’를 둘 예정
  - 이를 통해, 일본이 취해야 할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일 뿐 아니라 규제개혁과 연구개발, 자금 공급, 인재 육성 등 종합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이부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참고 1> '일본재흥전략 2016-명목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성장 전략		부가가치 창출 규모	
1. 국민전략 프로젝트 10	1-1. 신규 유망 성장시장 창출	①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 - IoT, 빅데이터, 로봇	부가가치 창출 30조엔('20년)
		②세계 최첨단 건강입국	시장규모 26조엔('20년)
		③환경에너지 제약 극복과 투자 확대	관련 투자 28조엔('30년도)
		④스포츠의 성장 산업화	시장규모 15조엔('25년)
		⑤기존 주택 유통·리폼시장 활성화	시장규모 20조엔('25년)
	1-2. 로컬 아베노믹스 심화	⑥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410조엔('20년)
		⑦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혁신	-
		⑧공격적인 농림수산업 전개와 수출 촉진	6차산업시장 10조엔('20년도)
	1-3. 국내 소비 심리 환기	⑨관광입국의 실현	외국인여행자 소비규모 '15조엔('30년)
		⑩국민연계에 의한 소비심리 환기책 등	-
2.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한 규제·제도개혁			
3. 이노베이션 창출·도전정신 넘치는 인재 창출			
4. 해외 성장시장으로부터의 수확 - 인프라시스템 수출 확대 : '13년 약 16조엔 → '20년 약 30조엔 - 대내 직접투자 유치 강화 : '14년 23.3조엔 → '20년 35조엔 - 이외 TPP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			
5. 개혁 모멘텀의 활용 - 개혁 2020 프로젝트 추진 : 자율주행, 분산형 에너지, 첨단로봇 등 도쿄올림픽을 일본 기술력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쇼케이스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 産業競争力會議, 名目GDP600兆円に向けた成長戦略(「日本再興戰略 2016」の概要)【案】, 2016年 5月 19日.			

<참고 2> 산업 및 취업 구조 변화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산업 및 취업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르는 성장엔진 강화에 크게 기대하고 있음

- 현상방치 시나리오의 경우 2015~2030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연율)은 0.8%에 불과하나, 변혁시나리오는 동 2.0% 수준까지 GDP 성장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
-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액만 2020년에 30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변혁시나리오에 의한 GDP 증가분 45조엔의 약 67%에 이르는 규모임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산업 및 취업 구조 변화에 따르는 영향>

2015~2030년도(연율)		현상방치시나리오	변혁시나리오
실질 GDP 성장률		0.8%	2.0%
명목 GDP 성장률		1.4%	3.5%
임금 상승률		2.2%	3.7%
명목 GDP	2020년도	547조엔	592조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액 30조엔 포함)
	2030년도	624조엔	846조엔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 産業構造審議會, 「新産業構造ビジョン」:第4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中間整理, 2016年 4月 27日.

- 주 1) 현상방치시나리오는 첫째, 일본의 산업이 해외의 플랫폼머 하청으로 전략함에 따라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한편 둘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부가가치를 낳지 못하여 국내 산업이 저부가가치·저성장 부문화되어 셋째, 기계·소프트웨어와 경쟁하는 저부가가치·저성장 직업으로 노동력이 집중되어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사회를 말함.
- 2) 변혁시나리오는 첫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차원의 고부가가치·고성장 부문을 획득하고 둘째, 기술혁신을 활용한 서비스의 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참가율 증가에 의해 노동력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한편 셋째, 기계·소프트웨어와 공존하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에 노동력이 이동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함.